

2022년 8월 28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to deliver you. Declares the Lord.  
예레미야 Jeremiah 1:8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좋아하다가 세상에서 상처 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사역하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내 마음에 맞는 사람 A Man After My Heart 사도행전 Acts 13:21-22

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Then they asked for a king, and God gave them Saul the son of Kish, a man of the tribe of Benjamin, for forty years.  
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And when he had removed him, he raised up David to be their king, of whom he testified and said, “I have found in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y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 바울이 설교한 것을 전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생동안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찬양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간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씁니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고객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Then they asked for a king, and God gave them Saul the son of Kish, a man of the tribe of  
Benjamin, for forty years.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헤렘”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못된 것을  
배웠습니다.

우상숭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 제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무엘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은  
탓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Obey the voice of the people in all that they say to you, for they have not rejected  
you, but they have rejected me from being king over them. According to all the  
deeds that they have done, from the day I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even to  
this day, forsaking me and serving other gods, so they are also doing to you.

사무엘상 1 Samuel 8:7-8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Now then, obey their voice. Only you shall solemnly warn them and show them the  
ways of the king who shall reign over them.

사무엘상 1 Samuel 8:9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왕을 둘 경우, 모든 백성은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아들들은 각종 노역에 시달릴 것이고, 딸들은 각종 향료  
만드는 일과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곡식과 포도원에서 십일조를 거둘 것이며,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떼의 십분의 일을 끌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모든 백성은 그 왕 한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그들이 선택한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야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But the people refused to obey the voice of Samuel. And they said, “No! But there shall be a king over us. That we also may be like all the nations, and that our king may judge us and go out before us and fight our battles.

사무엘상 8:19b-20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 (self-centered)인가!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 창조(Creation)하셨고 구원(Salvation)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세상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처럼 왕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Obey their voice and make them a king.

사무엘상 1 Samuel 8:22b

사실, 그 왕 제도는 결코 “자기들을 위한 것” 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악한” 왕들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겪게 될 때까지는.

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And when he had removed him, he raised up David to be their king, of whom he testified and said, “I have found in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y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왜요? 사울은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였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But Saul and the people spared Agag and the best of the sheep and of the oxen and of the fattened calves and the lambs, and all that was good, and would not utterly destroy them. All that was despised and worthless they devoted to destruction.

사무엘상 15:9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I regret that I have made Saul king, for he has turned back from following me and

has not performed my commandments.  
사무엘상 1 Samuel 15:11a

사무엘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And Samuel was angry, and he cried to the Lord.  
사무엘상 1 Samuel 15:11b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은 회개하는 대신 변명했습니다. 제사하려고 이것들을 남긴 것이라고! 거짓말도 여기 섞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사무엘의 선언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And Samuel said, “Has the Lord as great delight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as in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Behol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listen than the fat of rams.”  
사무엘상 1 Samuel 15:22

그런데 이에 반하여 다윗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새의 일곱 아들들을 다 물리치시고, 들에 나가 있는 여덟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들에서 돌아와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And he sent and brought him in. Now he was ruddy and had beautiful eyes and was handsome. And the Lord said, “Arise, anoint him, for this is he!”  
사무엘상 1 Samuel 16:12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깊었습니다. 골리앗과 대결할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Then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to me with a sword and with a spear and with a javelin, but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사무엘상 1 Samuel 17:45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my heart!  
사도행전 13:22c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같은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날카롭게 대비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여호수아 Joshua 24:15d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윗과 같습니다. 거대한 인본주의(Humanism) 물결은 골리앗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Theocentrism)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가 적고, 그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강한 자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Uriah)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Nathan)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을 때, 그는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your steadfast love. According to your abundant mercy, blot out my transgressions.  
시편 Psalm 51:1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사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제사는 영적 태도(spiritual attitude)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  
시편 Psalm 51:17

보십시오! 여기 언급된 그 “마음”(heart)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변명하는 대신 “회개” 했더라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힘쓰는 대신, 땅에 엎드려 시편 51편 같은 기도를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예 버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타산지석!

오늘 우리는 사울을 본받지 말고 다윗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상 생활 중에  
담담하게 살아가는 어떤 “보통” 사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고단한 일상입니다.

광야에 도망치거나, 동굴에 숨거나, 이방인의 땅으로 도피하거나 하는 그 모든 일상 중에서,  
그는 늘 “기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우리는 시편에서 읽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난 중에도 “찬송”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시편 Psalm 23:1a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힘쓰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입사를 위하여 면접장에 들어가는  
후보생들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인생. 얼마나  
고단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보인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whoever would draw near to  
God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eek him.

히브리서 Hebrews 11:6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분께서 계신 것을! 그분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분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reward)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상을요? “당신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상급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Fear not, Abram! I am your shield. Your reward shall be very great!

창세기 Genesis 15:1b

믿음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건 이미 다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eternal promise)이  
오늘 우리의 약속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하여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일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나아가는 거룩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